

결혼, 행복을 넘어 거룩으로

에베소서 5:22-33

우리는 다 가정이 있습니다. 가정을 이루면서 행복을 누리려 하는 것은 결혼하는 모든 사람들의 소원입니다. 행복한 가정도 좋지만, 그것보다 더 좋은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거룩한 가정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거룩한 가정에 대한 비전과 소원과 기도가 있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남편과 아내의 관계가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가 되어야 한다고 가르치면서 거룩이란 단어를 두 번 사용합니다.(엡 5:26-27) 거룩한 가정은 그 가치를 깨끗함에 둡니다. 그 가정의 목표를 영광스러움에 둡니다. 이 거룩한 가정의 깨끗함과 영광스러움은 부부가 말씀을 따라 살 때 맺혀지는 열매입니다. 그렇다면, 거룩한 가정이 따라야 할 말씀은 무엇일까요?

1. 아내는 자기 남편에게 복종해야 한다

아내는 자기 남편에게 복종해야 한다고 말씀합니다.(엡 5:22-24) 이 복종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무엇인가 부정적이고, 불공평하다 생각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오직 성경대로입니다. 이 복종이란 단어는 부정적인 것이 아니라 예수님에게 있었던 삶입니다.(빌 2:5-9) 예수님의 복종은 그 과정이 어려운 것이지만 하나님 아버지께 적극적으로 복종하셨습니다. 이 복종의 결과로 하나님 아버지는 기뻐하시고, 수많은 자들은 살게 되었습니다. 너무나도 귀한 복종, 아름다운 복종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가정에서 남편을 머리로 세우셨습니다. 모든 아내는 자기 남편이 자기의 머리됨을 인정해야 합니다. 남편이 머리가 된다는 것은 권위와 책임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남편이 아내보다 더 우월하다던가, 남편의 인격이 아내보다 더 고상하다는 것이 아닙니다. 머리됨의 기능과 역할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람마다 기능과 역할의 차이는 두셨지만 차별을 두시지는 않으셨습니다.(갈 3:28)

복종은 겉으로만 할 수도 있고 마음으로부터 할 수도 있습니다.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하기 위해서 남편의 머리됨만 인정해서는 안 됩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일러주고 있습니다.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엡 5:33b) 아내가 남편을 업신여기면 마음에도 없는 행동이 나옵니다. 복종을 하는 것 같아도 태도가 아닌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아내가 남편을 존경하면 진정어린 복종을 할 수 있습니다. 존경하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은 한 가정의 좋은 남편이고 아버지일 뿐 아니라 믿음의 조상이라는 영광스러운 칭호를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과거 아브라함은 처음부터 믿음이 좋았던 남편, 담대하거나 용감한 남편이 아니라 겁쟁이었습니다.(창 12:10-13) 그런데, 그럼에도 사라는 아브라함을 주라 부르면서 잘 섬겼습니다.(벧전 3:1,5-6) 존경할 만해서 존경 한 것이 아니라 존경스럽게 만들어 갔습니다. 하와와 아담처럼 아내 때문에 괜찮은 남편이 망한 경우도 많고, 반대로 사라와 아브라함처럼 지혜로운 아내 때문에 어이없던 남편이 믿음의 남편으로 영광스럽게 되는 경우가 성경에도, 우리 주변에도 많이 있습니다. 남편을 세워서 빛나게 만들어야 합니다. 남편을 인정해줍니다. 존경해 줍시다. 따뜻하게 합시다. 당신이 최고라고 합시다. 주위의 영똥한 이야기는 듣지 말고, 말씀을 함께 들으며 나 때문에 남편이 점점 세워져 나가는 그 일이 있어야 합니다.

2. 남편은 자기 아내를 사랑해야 한다

거룩한 가정이 되기 위해서는 그리스도가 교회를 사랑하듯이 남편이 자기 아내를 사랑하라는 말씀을 따라야 합니다.(엡 5:25,28-30) 아내를 사랑하는 것은 몇 가지 행동이 필요합니다.

1) 아내를 사랑한다는 것은 아내를 괴롭히지 않는 것입니다 - “남편들이 아내를 사랑하며 괴롭게 하지 말라”(골 3:19) 아내를 괴롭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주 폭군같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내를 때리는

남편들도 있습니다. 기독교 가정에서도 폭력이 있다고 합니다. 밖에서는 거룩한 것 같은데 집에 오면 이상해지는 것입니다. 사랑한다면서 괴롭히면 안 됩니다. 사랑과 괴롭힘은 같이 있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교회를 한 번도 괴롭히지 않았습니니다. 언어로 폭력을 행사하시지 않으셨습니다.

2) 아내를 사랑한다는 것은 아내를 버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 사랑에 대해 이런 글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그만 둘 수 있으면 사랑이 아니다. 그만 둘 수 없으니 사랑이다.” 그만 두는 것은 사랑이 아니라고 합니다. 끝까지 같이 가야 하는 것이 사랑이라고 합니다. 창조주 하나님은 자기를 우리의 거룩한 남편이라고 소개하시고, 아내인 우리에게 문제가 있더라도 끝내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는 모습을 보여주십니다.(사54:5-7) 사랑은 버리면 안 되는 것입니다. 1936년 1월 영국의 왕으로 즉위했던 에드워드 8세는 미국 이혼녀였던 심프슨과의 결혼을 위해 일 년도 안 되어 왕위를 내려놓았습니다. 갈등의 요소가 늘 있겠지만, 우리 주님이 우리를 버리지 않았듯이, 남편들이여, 아내를 사랑한다면 아내를 버리지 않아야 합니다.

3) 아내를 사랑한다는 것은 아내를 위해 생명을 내놓는다는 것입니다 - 남편은 아내에 대한 의무가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주심 같이, 아내를 위해서 죽는 것입니다. 아내는 고통 받고 힘들고 외로운데, 밖에 나가서 일을 한다, 선교를 한다하는 것은 안 됩니다. 제가 한국에 있을 때 어느 안수집사님이 자기 아내의 병간호를 위해 좋은 직장을 포기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아내를 위하여 죽는 것, 이것이 진짜 순교이고, 진짜 사명입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믿음은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고 사랑은 모든 것을 쉽게 만든다.” 진짜 사랑하면 죽음도 어렵지 않습니다. “My life for my wife!”(내 생명은 내 아내를 위한 것임) 내 생명을 바칠 대상, 내 아내입니다.

4) 아내를 사랑한다는 것은 아내를 양육하고 보호한다는 것입니다 - 아내를 사랑한다는 것은 아내를 성장시키고 보호해 주는 것입니다. 아내를 말씀으로 점점 깨끗하게 영광스럽게 해 주어야 합니다. 아내를 위해 기도하십니까? 이런 확신을 가지고 아내를 위해 기도하는 남편이 있습니다. “남편의 기도는 아내의 영혼을 살찌운다. 남편의 기도는 결혼생활을 지켜준다. 남편의 기도는 아내를 아름답게 만든다. 남편의 기도는 아내를 순종으로 이끈다. 남편의 기도는 아내의 기분을 바꾸어 준다. 남편의 기도는 아내의 꿈을 이루어준다. 남편의 기도는 아내가 구원받게 도와준다.” 남편은 아내의 성장을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아내를 영광스럽게 해주어야 합니다.

윈스턴 처칠이 어느 모임에 참석했습니다. “지금의 내가 다시 될 수 없다면 나는 어떤 삶을 살고 싶은가?” 라는 질문을 가지고 서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윈스턴 처칠의 차례가 되었을 때 그는 자기의 아내의 손을 잡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금의 내가 다시 될 수 없다면, 나는 이 여인의 두 번째 남편이 되고 싶소.” 그 자리의 다른 사람들도 감동이 되었는데 그 부인이 얼마나 감동이 되었겠습니까? 아내를 영광스럽게 만드는 것이 남편의 사명입니다. 아내를 사랑한다는 것은 괴롭히지 않는 것이요, 버리지 않는 것이요, 생명을 내놓는 것이요, 양육하고 보호해 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혼은 행복을 넘어 거룩한 결혼이 되어야 합니다. 깨끗함과 영광스러움, 이것이 거룩한 결혼의 핵심입니다. 아내가 복종하고 남편이 사랑하라는 말씀에 순종하면 깨끗함과 영광스러움이 각 가정에 있을 것입니다.

○ 나눔의 시간 ○

1. 거룩한 가정은 무엇을 통해 이룰 수 있나요?
2. 성경은 아내가 남편을 어떻게 대해야 한다고 말씀하나요?
3. 성경은 남편이 아내를 어떻게 대해야 한다고 말씀하나요?
4. 가정의 달을 맞으며, 가족에게 하고 싶었던 말, 혹은 하고 싶은 일들이 있다면 함께 나누어 봅시다.